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위한 묘지조형물 디자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sign of a charnel house for an Effective Use of the National Land

**박 종 찬(Jong-Chan, Park)**  
시립인천저문대학 산업디자인과

I. 서론

- 1-1 연구의 목적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II. 삶과 죽음의 의미 고찰

- 2-1 삶의 철학적 의미
- 2-2 죽음의 생물학적, 사회적 의미

III. 한국인의 묘지에 대한 의식구조 및 제반 문제점

- 3-1 사후세계에 대한 의식구조
- 3-2 묘지에 대한 의식구조
- 3-3 우리나라 묘지의 문제점과 개선안

IV. 각국의 묘지정책 유형과 묘지의 조형요소 비교분석

- 4-1 각국의 묘지정책의 유형
- 4-2 각국 묘지에 나타난 조형요소 비교 분석

V.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위한 묘지조형물 디자인

- 5-1 디자인 배경
- 5-2 Design concept Diagram
- 5-3 가족단위 묘지조형물 디자인 Motif
- 5-4 디자인제도 및 배치사례

VI. 결론

참고문헌

(요약)

우리나라는 고대국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례를 후히 하는 풍습이 있어 정중히 예(禮)를 다하여 장례에 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조선의 예는 철두철미한 유교적인 방법으로 효의식의 묘제에 대한 절차에 의해서 그릇된 영향을 미쳤으며, 더욱이 풍수설로 인하여 이장(移葬)과 공사가 극심하였다. 이후 근대 산업화 발전과 함께 인구가 증가되고 따라서 사자(死者)도 증가되어 묘지가 점차 확대되어감에 따라 유한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문제가 묘지와 관련되어 제기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묘지공간이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명상의 공간」 또는 「안락함의 장소」 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연주의, 평등사상 등 인간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적인 측면과,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편리한 납골안치기능과 독창적 상징성을 표현하는 조형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묘지조형물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특히 우리생활 안에서 일종의 휴식공간, 운동, 교양 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묘지문화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묘지문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관심이 첨단을 향한 성장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정신적 삶의 가치에 관련된 부분도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질 때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It is already a well-known fact, that Korean attend the funeral ceremonies with their courteous etiquette being derived from their customs succeeded from the old ancient times to the contemporary one, regarding it as of great importance. Especially in the age of Lee Dynasty, the etiquette has been a way of Confucian ideas, which has exerted a harmful influences to Korean society due to the reflection of the dutiful consciousness to the tomb customs, and that the change of the burial site and its construction works became more and more serious and excessive.

In the meantime, the population has been increas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industrialization and the number of the dead has also been increased, which caused the issue on the effective use of the limited national land relating to the tomb culture, as the passing of the time. Consequently, in this study on the design of the charnel house, three aspects, humane aspect pursuing the human value, like naturalism or equalitarianism, circumstantial aspect presenting minimum space and convenient space, and formative aspect expressing convenient space, and formative aspect expressing convenient charnel function, unique form and symbolism, have been considered, in order that the tomb space could be transferred to the place for the meditation looking back the meaning of the life, or the place for the comfort.

Above all, the special emphasis has been put on the creation of the tomb culture, harmonizing relaxation, exercise and refinement in everyone's life. And in order to realize it, the special interest and investment should be directed not only to the materialistic culture caused from the whole hearted devotion to the development for advancing society, but to the related parts to the value of the life or spiritual culture, such as ideology, culture or environment etc., which would be led to the entrance to the real advanced country members.

(Keyword)

National Land, Charnel house, Effective Use

## I. 서론

### 1-1. 연구의 목적

예로부터 한국인의 전통적 사고는 사람이 죽는다고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산다고 믿어왔다. 특히 조선시대의 강한 유교적 영향으로 인하여 '장례'는 효와 예를 겸비한 중요한 문화의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게다가 신라말부터 퍼지기 시작한 풍수지리설은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확대되어 민간에 까지 깊게 파고 들었다. 조상의 묘자리가 명당이면 가문의 복과 출세에도 많은 상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명당자리를 얻기 위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오늘날 비좁은 우리의 국토는 점점 늘어가는 묘자리 면적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감당키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묘지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과 각국 묘지에 대한 조형요소를 살펴보고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함으로써 국토 이용방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 1-2.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그동안 많이 거론된 바 있는 묘지제도, 유래, 분포, 규모 등의 일반적인 지리학적 연구와는 달리, 주로 묘지에 대한 의식과 조형성, 그리고 묘지의 디자인적인 해석 등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그리하여 첫째 심리적 측면(의식구조), 환경적 측면(묘지 공원화), 경제적 측면(화장 납골제도)의 기본적 조건 등을 살펴보고

둘째, 묘지 관행 등에서 나타난 외관상 특징에 맞추어 각국별 묘지를 비교·조사함으로써 그 안에 내재된 상징적 조형성과 문화적 연결고리를 찾고자 하였으며,

셋째, 삶과 죽음사이에 명상의 공간으로 유도할 수 있는 묘지의 디자인 측면, 다시 말해 가족단위의 최소 면적으로 납골당 형식의 묘지 디자인 방안을 연구하여 묘지 조형물에서 얻을 수 있는 심리적 불쾌감을 해소하고 쾌적한 삶의 일부로서 휴식, 유희, 운동, 교양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묘지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 II. 삶과 죽음의 의미 고찰

### 2-1. 삶의 철학적 의미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세계는 이른바 <생과 사>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세계이며, 그 자체가 탄생이고 변화이며 항구적인 흐름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주의 창조과정을 살펴보면, 근원적인 상태에서 음양이 발생하고 또한 만물은 양기와 음기의 화합으로 나타난다.<sup>1)</sup> 여기서 기(氣)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호흡이나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에너지를 말하는데, 기는 모든생성의 기초이며, 율동적으로 화합하기도 하고 분산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화합하

면 생성하는 것이고 분산되면 소멸하여 무(無)로 용해시키는 천지의 호흡인 것이다.<sup>2)</sup> 따라서 운동과 변화는 만물의 본질이고 본래의 성질을 뜻한다. 결국 생명이란 지속적인 운동과 변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일찍이 생기론(生氣論)에 의해 생명현상을 설명한 베르그송은 생명과 의식에 대해 고정불변하는 존재는 있을 수 없으며, 유(有)와 무(無), 물질과 정신 등의 실체는 운동과 변화의 지속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생명은 공간의 문제이기 보다는 시간의 문제이며, 생명은 상태가 아니라 변화이고, 양이 아니라 질이며, 율동적이며 부단한 창조라고 하였다.<sup>3)</sup>

또한,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는 쇼펜하우어를 통해 인도 특히 불교의 영향을 받아 세계는 아무런 본래적 질서도, 일관된 목적도, 도덕적 정부도 없었다고 생각하였고 다만 서로 다른 무수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천차만별의 사물들인 것으로, 삶은 고통과 모순, 갈등과 투쟁의 연속이지만 이것은 신이나 절대진리 혹은 엄세론으로 은폐시키는 것을 부정한 대신 <초인>을 주장함으로써 인간적인 본래 모습을 극복하려했다. 여기서 <초인>이란 대지의 뜻이며 생동하는 삶을 위해 인간의 속물근성을 극복하는 자를 말하므로 니체에게 있어서 인간이란 고정된 존재가 아닌 <초인>으로 향하는 과정상의 존재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그는 선악의 구별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세계의 모든 현상들이 영원회귀(永遠回歸)하는 과정에서 잠시 나타나는 상태일 뿐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또 우리의 창조적인 삶의 원동력이자 모든 존재의 알 수 없는 심연으로부터 유래하는 energie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한편 독일의 철학자 카시러(Ernst, Cassirer, 1874~1945)는 <인간과 상징>에 대해 인간 그 자체가 상징과 관련지어 살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는 '인간은 언어형식, 예술적 상상, 신화적상징, 혹은 종교의식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어떠한 인위적 매개물의 개입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라고 하였다. 또한 상징성의 기능을 인간행위의 목적성과 역사성에 비추어 인간존재의 위치에 대해 충고하였다.

'인간은 상징들의 세계에 살며, 상징의 세계는 의미의 세계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세계의 의미있는 것을 찾는 동물이다. 그 의미는 현상을 실현시켰고, 인간으로 하여금 문화를 창조하게 하였다.' 라고 함으로써 문화의 세계야 말로 인간들의 고유한 상징들의 세계라고 강조하였다

### 2-2. 죽음의 생물학적, 사회적 의미

죽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생명현상이 없어지는 것으로 당사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사건으로서 종교, 제의, 신화, 예술 그리고 철학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듯 인간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죽음에 대한 생물학적,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4)</sup>

2) Fritjof Capra, 이성범, 김용정공역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범양사 1981 pp. 251-252

3) Durant, W. 황문수역 「철학이야기」, 서울 문예출판사, 1991. p.48

4) 김진숙 「안락사에 관한 연구」 이대 철학과 1988 p.23

1) 金原性壽, 민병산역, 「동양의 마음과 그림」, 서울, 새문사 1989 p.34

첫째, 육체로부터 영혼의 불가역적 이탈현상으로 사람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생기가 사람에게 있다고 믿는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회랍어의 "Penuma"(정신, 영)가 호흡과 영혼이라는 두 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 인간에게 생기를 주는 힘은 오로지 호흡이라고 생각하고 호흡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것이다. 또 영혼이란 인간의 생명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정기로서 액체의 흐름이 정지하였을 때 영혼의 이탈이 시작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둘째, 신체적 통합능력의 불가역적 정지(capacity for bodily integration)현상으로 뇌는 의식, 운동조절, 감각, 사색하는 능력, 호흡과 혈액 순환을 포함한 신체적 기능, 혈압, 이온농도 및 동공의 크기 등을 조절하는 통합적 반사를 지배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뇌의 활동정지는 곧 죽음을 뜻한다는 견해이다.

셋째, 사회적 상호 능력 불가역적 정지(capacity for social integration)현상으로 인간의 특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각 개인의 인격, 의식, 독특성, 기억, 판단, 추리, 행동, 향락, 근심 등이라고 했다. 특히 인간의식의 중요성은 신체적 통합능력이 있다고 해도 의식과 사회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능력이 불가역적으로 상실하게 되면 인간으로서 본질적 특징을 잃게 된 것으로 이미 죽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죽음의 개념으로 보아 인간의 삶에 있어 궁극적으로 중요한 점은 Homo Sapiens(思考人)으로서 이성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적 상호 작용능력인데 이 두기능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 두기능의 작용능력 상실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욱이 예고 없는 죽음은 인간의 삶을 덧없고 허망하게 만들기도 한다. 인간의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질병의 고통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났으나 죽음에 대한 근본적 인간의 한계는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죽음은 사람들의 인생관과 세계관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인생관과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도 한다.

좋은 죽음(Eu-thanatos)은 행복한 삶(Eu-daemonia)의 반영으로서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죽음은 삶의 종말이 아니라 삶의 결산으로서의 한 형태로 생각되며 또한 인간이 죽음에 대한 한계상황을 인식하는 것은 삶의 끝남만이 아니고 또 다른 인식에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즉 삶과 죽음은 빛과 그늘 관계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죽음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어떠한 삶을 선택하느냐의 과제와 연결되어지며 죽음이 끝남이라는 부정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사는 삶보다는 행복한 삶으로서 좋은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 III. 한국인의 묘지에 대한 의식구조 및 제반 문제점

#### 3-1. 사후세계에 대한 의식구조.

##### 3-1-1. 영육분리(靈肉分離)의 이원적 사고

한국인의 전통적 사고는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육신과 영혼의 결합에 의한 존재로 보았다. 이에 의하면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삶이요.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죽음

으로 보는 의식이다.

다시말해, 육신은 형상을 갖추고 있어 눈으로 볼 수 있으나, 영구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다. 형상을 갖추고 있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공간성에 의한 것이고 유한하다는 것은 시간성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육신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다. 영혼은 본질적으로 형체가 없어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한 존재라고 믿는다. 형체가 없어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공간성에 의한 것이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시간성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영혼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않는 무시간, 무공간의 존재인 것이다.

##### 3-1-2. 재생의식(再生意識)

인간의 삶은 육신과 영혼의 결합에 의한 것으로, 사후에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재생하지 않으면 내세로 가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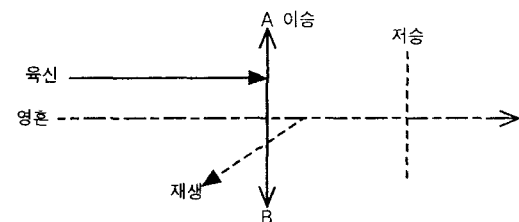
재생양식에는 부활과 환생이 있다. 부활은 죽었던 사람의 영혼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동물 또는 식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부활에는 죽었던 사람이 꽃, 약수, 눈물, 나뭇가지 등 신령스런 물건을 매개로 하여 다시 살아나는 영물매개부활(靈物媒介復活), 육체를 떠났던 영혼이 저승에 갔다가 다시 육체로 귀환함으로써 그 사람이 살아나는 환혼부활(還魂復活), 죽은 사람 또는 그 가족의 행동에 감동한 하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주어 살아나는 감천부활(感天復活)이 있다.

환생의 양식으로는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인간 환생과 동물로 태어나는 동물환생, 식물로 태어나는 식물환생, 광물로 태어나는 광물환생이 있다.

##### 3-1-3. 내세관(來世關)

내세는 재생하여 이승으로 돌아오지 않은 영혼이 가서 안주하는 곳이다. 내세에 관한 관념, 즉 내세관은 영혼불멸관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된 것인데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여러민족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이다.

한국인은 처음에는 '저승'이 지하에 있다고 믿고 선악에 대한 도덕적 관념이나 종교적 관념이 없어 그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였으나, 도교, 불교의 내세관과 용궁사상의 혼효로 산상의 선계(仙界), 천상의 타계, 용궁을 상징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세관은 이원적 분리를 일으켜 현세에서 적선한 자의 영혼은 선계, 혹은 극락으로 가고 적악자는 지옥으로 간다고 보았다. 그리고 환생할 때에도 적선자는 사람으로 적악자는 동물 또는 식물로 환생된다고 믿게 되었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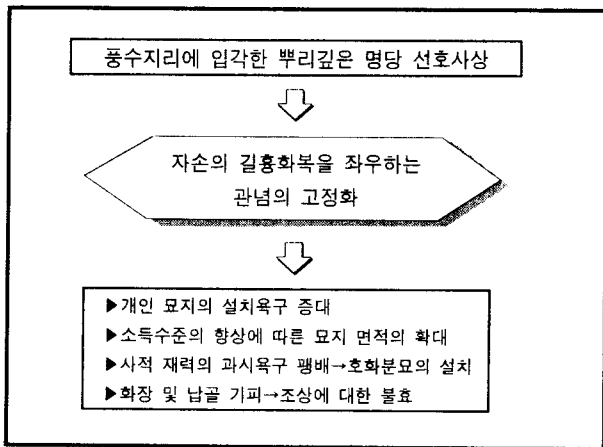
5) 최운식, 「민속적인 삶의 의미」, 도서출판 한울, 1993. p84

### 3-2. 묘지에 대한 의식구조

한나라의 묘지에 대한 관행이나 제도는 그 나라와 오랜 전통적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 등과 크게 관련이 되는 것으로 묘지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민간에 만연되어 있는 풍수설은 묘지 관행에 대한 개선이나 변화를 어렵게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산수가 신비로운 생기를 품으면서 인간의 길흉화복을 좌우한다고 믿고, 거기에 인간과 사령(死靈)을 일치, 조화시킴으로써 인간생활에 복리를 추구하려고 좋은 명당자리를 찾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김태복씨가 한국토지 행정학회지에 발표한 묘지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구조에서 나타났는데 한국인은 묘지 선정이 후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64%가 관계있다고 보고 있으며, 장례의 유형에 관해서도 25%만이 화장가능성을 내비추고 있어 유교사상에 따른 생활습관이 깊이 배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분묘 설치장소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공동묘지를 꺼리고 생기가 있는 길지(吉地)를 선택하여 분묘를 설치하겠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으로 주택, 교육, 생활양식 등 모든 분야가 눈부신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묘지에 관한 매우 보수적이며 강직한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국민 대다수는 수백년부터 내려온 재래의 분묘설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국토는 여전히 크게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묘지 보존에 따른 한국인의 의식구조



자료: 한국산업 개발원 '묘지제도의 개선방안 조사연구'

### 3-3. 우리나라 묘지의 문제점과 개선안

#### 3-3-1. 우리나라 묘지의 문제점

우리나라 묘지는 90%가량이 경사도 30도 이하의 경작 가능 지역에 몰려 있어 국토의 효율적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매장관습으로 인한 분묘의 격증으로 말미암아 산림이 훼손돼 미관상 좋지 않음은 물론, 자연보호의 관점에서 피해가 크며 경작 가능지나 임지를 차지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많은 분묘가 비관리묘로 되어있어 국토개발 정책수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있다.6)

이와 함께 도시주민들은 묘지마련이 갈수록 어렵게 되어 30㎡정도 묘를 마련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묘지설치가 막대한 경제부담의 요소가 되고 있다. 반면 특수 부유층에서 집안어른들이나 자신들의 묘자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기존 공원묘지의 묘터를 선약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막상 상을 당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반인들은 심각성을 절감하고 관행이나 의식의 변화를 느끼고는 있으나 대부분이 아직도 오랜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매장에 의한 장례방법을 택하고 있다.

#### 3-3-2. 우리나라 묘지에 대한 개선안

우리나라 묘지에 대한 개선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관행(慣行)면에서는 되도록 긴 일정의 장례절차를 줄이고, 상가에서의 음식제공과 곡성을 자제하며, 지나치게 화려한 장의 행렬이나 영구차의 장거리 운행을 통제하고, 이장보다 화장을 권장하는 국가적 여건이 필요하다. 둘째, 제도적인 면에서는 구미의 경우처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른 땅인이 사용할수 있도록 묘지의 임대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을 최대한 축소시키는 것, 또한 빈부차가 심하게 나지 않는 국민기본장지의 패턴을 설정하고 모든 국민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 그리고 호화분묘에는 등급에 따라 과세하고 묘터 선매 등에 의한 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확립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표 2> 외국의 임대묘지 현황

국 가	묘지임대기간	옮겨지는 장소
포르투갈	5년	벽룡 또는 공동묘지
이 태 리	18개월~10년	화장 또는 벽룡
스 페 인	3년	화장 또는 공동묘
멕시코	1~7년	납골당
파 나 마	18개월	벽위에 있는 묘지
프 랑 스	5~30년	공원묘지

자료: 홍순백, 「우리나라 묘지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 행정대학원 1995 p.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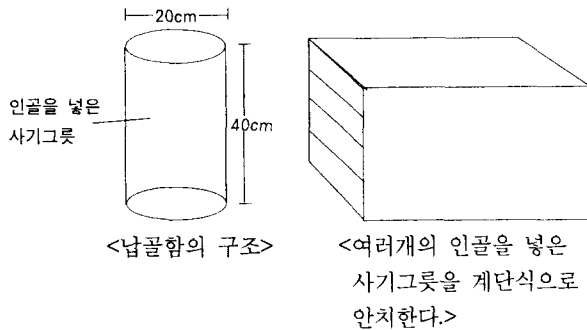
셋째, 토지의 이용측면에서는 봉분식 분묘의 설치방법을 집단 평분식(集團平墳式)으로 이행하는 것과 전묘지 면적의 85.6%에 달하는 30° 이하의 환경사지에 분포하고 있는 분묘를 한곳에 모아 집단화하는 것, 또 묘지의 조경이나 외관에 주력하여 위생적이면서 아름다운 묘역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묘지아파트와 공동 납골당을 과학적이고 현대적으로 구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식구조면에서는 화장의 과학성을 계몽지도하고, 조상숭배 정신은 우리민족의 장점이나 풍수설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7)

현재 화장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식 시설을 갖춘 납골당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뿐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사찰이나 재래식 화장장내 안치되어 있다. 따라서 납골당의 현대화와 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납골당의 구

- 6) 한명식 「국토의 효율적이용을 위한 묘지제도 개선방향의 연구」 전주대 지역개발대학원 1988. p.33
- 7) 조종식 「한국묘지의 법적인 연구」 경희대학원 1985

조는 일반묘지와 비슷하다. 그러나 내부에는 가로 20cm, 세로 40cm, 둘레 40cm 정도의 원주형(圓柱形) 도자기에 넣은 많은 납골을 안치할 수 있고, 많은 묘지면적을 차지하지 않아 이 점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납골당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평등사상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1> 납골당의 일반적 형식



#### IV. 각국의 묘지정책 유형과 묘지의 조형요소 비교분석

##### 4-1. 각국의 묘지정책의 유형

각국의 묘지정책은 지역에 따라 그리고 주변환경과 전통, 종교관습에 따라 관행이나 제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묘지문제는 국토면적이 넓은 국가보다는 토지문제가 심각한 국가에 있어서 더욱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매장제도를 개선하려는 여러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부 유럽국가에서도 묘지문제는 심각한 편이다.<sup>8)</sup> 특히 미국은 인구에 비해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나라이지만, 50개주 5만 5천개의 공, 사립묘지가 앞으로 10-25년 이내에 모두 만장될 위기에 놓여있다. 그 해결방안으로 1인당 매장면적을 줄인다고 지하로 2, 3층 터널을 파서 매장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토지문제가 심각한 영국에서는 묘지가 차지하는 공간을 줄이기 위해 도시에서는 절대 매장을 금지하고 화장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화장율이 유럽에서는 가장 높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도 해마다 증가하는 묘지의 부족을 경감시키고 공간의 밀집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묘지아파트 건립이나 20-30년의 시한부 묘지제도를 개발하여 묘지난을 해결하고 있다.<sup>9)</sup>

한편, 태국, 인도와 같은 나라는 대부분이 화장을 하는 전통으로 인하여 국토관리를 위해 공동묘지를 설정하거나 묘지의 크기를 제한하는 묘지제도 같은 것을 따로 만들지도 않으며, 장례로 인한 사회문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세계의 전반적인 추세는 화장을 권장하는 형편인데, 나라의 전통과 종교사상 때문에 매장이 불가피한 나라에서는 임대차 묘지제도, 시한부 묘지제도등의 사용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화장하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장율이 17.8%로 세계평균 37.5%보다 훨씬 낮으며, 우리와 국토사정이 비슷한 대만,

일본, 영국에 비해서도 매우 낮으므로 화장은 적극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표3> 국내의 묘지관행의 비교

내용	분묘형태	분묘면적	유골처리방법	비고
한국	유형의 봉분식	1기당 20cm 이내 합장 25m 이내	화장 18% 정도 나머지는 매장	원추식이 아닌 유형은 공간점유율이 높다.
일본	평분식 비석묘	도시 4-5m 지방 6m	벽지와 농촌을 제외하고 90% 이상 화장	좁은 국토에서 묘지제도 성공
홍콩	지상에 석물로 밀집	매장시 1평 정도, 합장시 25m 이내	매장-공동묘지 화장-화장터	임종은 반드시 병원, 장례식전담소에서 처리
인도	회교도: 장방형의 평분	20cm	화장하여 유골을 길에 뿌리는 수장의 절충식	특수한 사람을 제외하고 묘지가 거의 없다.
영국	평분식		화장 후 잔디, 나무 밑에 뿌리거나 지하납골당, 가족묘지에 안치	도시에서는 매장이 금지
프랑스	대규모의 공원묘지		매장 > 화장	공원묘지, 묘지 APT 사용, 매장 후 일정기간 지나면 화장하는 시한부묘지제도가 정착
스위스		매장: 세로 2m 가로: 80cm 길이: 1.5m	매장, 화장 후 20년 이내 지나, 재계약이 없으면 새로운 묘가 선다.	일찍부터 묘지제도가 현대화로 완성
덴마크	특수층: 봉분식, 지하 납골소 평장		유해를 잔디에 묻는 평장, 화장율 45%	직업적 장의사는 없고, 개인 누구나 장의일을 볼
스웨덴			90% 화장	장의시설완벽, 사망과 그 처리에 엄격한 규제
서독	사립묘지: 냉동식, 개인묘지: 봉분있음	가족관 묘할은 사방 3m 정도	이중매장 후 일정기간 지나면 재매장, 화장	장의회사 시설완벽 이중매장이란 부모가 겹쳐지게 매장한 후 그위에 자녀를 매장함
미국	관크기의 땅을 파서 묻고 대리석 뚜껑을 씌움	매각묘지: 10.2m 공동묘지: 2.88m	매장, 화장율 12%	전체 화장율의 1/2은 태평양 연안지방 엄격한 장의사자격제도
캐나다			주요 지하매장, 추운 지방은 화장	장의회사 시설완벽 엄격한 장의사제도

자료 : 조병권, "우리나라 묘지제도의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1987), pp.16-20

##### 4-2. 각국묘지에 나타난 조형요소의 비교분석

###### 4-2-1. 사례분석의 기준체계

본장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물인 묘지는 각국의 환경과 역사적 전통에 따라 묘지의 관행과 제도가 매우 상이하므로

8) 김종대 '우리나라 묘지제도와 운영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pp.14-28

9) 조종식 '한국묘지에 관한 법적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85 p.132

이러한 광범위한 현상을 비교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나 묘지는 여러 문화현상중에서 형(形)으로 나타난 가장 효과적인 대상의 하나이다. 그 요소에는 묘석, 묘장석, 도로, 산림, 울타리, 문등이 포함되어 각각 인간세계를 반영하는 듯한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더욱이 묘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안에서 공간적(空間的), 시간적(時間的), 민족적(民族的), 경제적 차이를 보이면서 시대별 상황에 따라, 또는 도시의 역제 기능에 따라, 그리고 종교, 국가, 장소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렇듯 묘지는 다양하게 변화된 사회적기능에 편승하여 여러 가지 형태와 경향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평가 대상을 문헌에 나타난 각국묘지의 사진을 통하여 비교적 보편성을 지니면서, 형태적으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13개국, 19개의 묘지조형물을 선정하였다.<sup>10)</sup> 그리고 각국 묘지의 조형특징과 관행의 일반적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념을 설정 -형태요소, 구성방식, 의미 및 특징-하고 연구의 기준체계를 마련하였다.

<표 4-1> 각국 묘지에 나타난 조형요소의 분석 기준 체계

구분	의미, 개념	나타난 특징	비 고
형태 요소	기존묘지들의 현상학적인 요소들	기하학적 단순형태	육면체, 원통형, 반원등
		단편	각종비석, 조각
		자연형태	주변과의조화, 자연재료
		기념비	모뉴먼트, 건물, 아파트
구성 요소	각각의 현상학적 형태요소들의 조합방식, 효과	반복, 대칭, 병렬	단편과요소의반복
		플라주	단편들의조합, 매스의조합
		단순성, 연속성, 리듬성	동적인 운동감
		질서, 분절, 과장, ..	
상징, 의미	이미지, 광경, 추구하는 의미, 유추, 개념	오브제와의의성	은유, 상징
		시간과공간	삶과죽음, 장소성
		침묵	기억과상상
		역사성+사회성+지역성	모뉴멘탈리티

4-2-2. 각국묘지에 나타난 조형요소 비교분석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각국의 묘지형태는 전통이나 습관, 문화차이, 국토의 넓고 좁음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한 묘지형태에는 사자(死者)의 안식처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각종타입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다. 묘지형태의 대표적인 구성방식은 반복, 대칭, 병렬, 플라주, 분절, 질서, 과장등으로 나타나며, 추구하는 의미나 개념은 은유, 상징, 장소성, 기억과 상상, 모뉴멘탈리티 등이 있다.

묘지의 형태는 자연형, 비석형, 상징형, 아파트형, 건물형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연형에서는 미국(①), 스웨덴(②)과 같이 쾌적한 주변경관을 살려 명상을 즐길 수 있는 청결한 묘지공간의 형태를 강조하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 중국(③), 한국(④) 등과 같이 묘지형태가 부드럽고 안정적이며 묘지의 자연과의 조화가 잘 어우러져 있으나 개인이 차지하는 공간이 크고, 집단적인 형태일 때 시각적 거부감이 우려되는 곳도 있다. 비석형(⑤-⑦)은 엄격하면서 질서 있게

10) 勝井正雄 'お墓のすべてがわかる本' プレゼント社 1991

배열함으로써 깨끗함과 고요함, 그리고 위생적인 형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상징형(⑧-⑪)은 주로 아시아권에 분포되어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색채가 드러나 있고, 사자(死者)의 기원을 염원하는 상징적 형태가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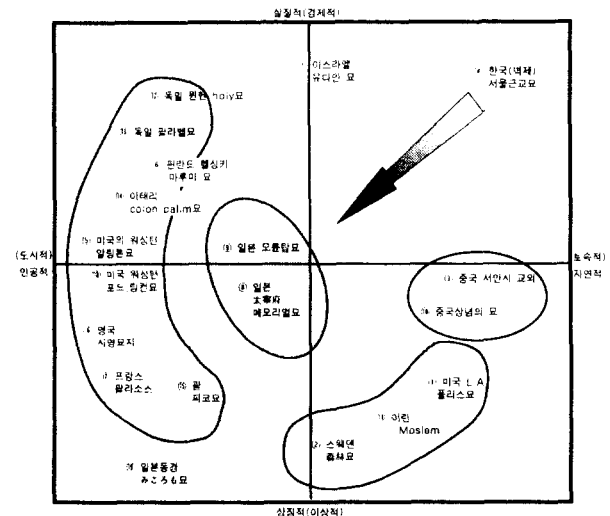
한편 아파트형(⑫-⑮)은 주로 유럽지역에 분포되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특정한 공간(벽)을 기능적이고 구조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복잡하고 비좁은 도시구조에 매우 적합한 처리방식의 묘지형태이다. 그리고 건물형(⑯-⑲)은 큰 공유면적의 확보와 비용면에서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묘지형태는 집의 구조를 취함으로 해서 삶과 죽음의 동시실현이라는 의미가 표현된 기념비적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로 본 각국의 묘지이미지는 <표 4-2>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에서는 조상을 숭배하고 신비주의가 스며 있는 종교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 중국의 묘지는 자연형태가 일반적인 반면, 일본은 철저한 화장제도와 공동위생의 실천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전통성을 살린 상징형 묘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중동지역에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알라신에 대한 순종과 이슬람식 문화의 실천으로 이웃에 대한 깊은 애정이 엿보인다. 특히 이란의 moslem묘는 기능보다는 이미지를 통해 이루어진 독특한 묘지형태가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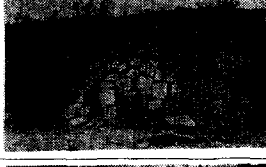
한편, 미국에서는 많은 인구와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 여러 유형의 묘지가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깨끗이 정리된 도시형 묘지형태가 일반적이다. 또한, 유럽에서는 환경친화적인 경향과 기독교의 영향으로 깨끗하고 성역화된 공원묘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건물형과 묘지형 아파트가 성행하고 있다. 이와같이 선진국 묘지는 묘지공간이 집단화되어 있고 쾌적한 공원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민들의 생활결에 위치하여, 항상 휴식하며 쉴 수 있는 명상의 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한국묘지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표 4-2>와 같이 묘지형태면에서 거창한 서구형의 대규모 건물형 묘지의 실현보다 가족단위별 묘지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는 일본의 묘지형태 사례가 현실적으로 국토가 좁은 우리에게 더 효율적인 방향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표 4-2> 각국 묘지의 Image Positioning



<표 4-3> 각국 묘지 조형물 비교분석

구분	국명	묘지	형 태	디자인요소	구성방식	의미, 특징
자연형	① 미국 LA	폴리스, 론 메모리얼 파크		청결, 명료성	Flat한 배치 완만한 경사	장소의 생명력 명상의 장소
	② 스웨덴	삼림(森林) 묘지		쾌적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목가적인 세계의 구성	재를 뿌리는 장소 추억의 나무 상징
	③ 중국	서안시교외		투박함 (토속적)	무덤정면에 벽돌문 을 만들고 다시 그 앞에 대문을 세움	사자(死者)의 혼이 벽 돌문과 대문을 통하여 출입, 외출 (전이공간의 역할)
	④ 한국	서울시 근교 (벽제)		부드러움, 안정성 (반원의 안정적 형태)	봉분식	삼재사상등 정신적 편안함을 상징
비석형	⑤ 미국 워싱턴	알링톤 국립묘지		사각육면체 (cube)	병렬, 반복	나란히 늘어놓음 (엄격함)
	⑥ 핀란드 헬싱키	마루미 묘지		질서성	평분식 비석의 나열	고요함, 명상의 장
	⑦ 이스 라엘	유다인의 묘		침묵, 질서성	장식의 배제	(단순기하학 형태로) 기념성 추구
상징형	일 본	⑧ 대재부 (太宰府) 메모리얼 파크		(구형) 상징성	균정성(좌우대칭)	염원을 비는 손의 모양을 은유
		⑨ 오륜탑묘		탑형	2면 대칭 (축, 비례)	전통적인 종교유형의 이미지 추구
	⑩ 중국	상님의 묘		원의 반복성 (동적인 공간구성)	경쾌한 구의 연속 (동적운동감)	인생의 허무성 상징



구분	국명	묘지	형태	디자인요소	구성방식	의미,특징
상징형	⑪ 이란	Moslem		이동성	흙으로 封土하고 그 꼭대기 위에 막대를 꼽아놓는 양식	막대형은 남자, 널빤지 형은 여자를 추도
아파트형	독일	⑫ 문헨 holy묘		장식성, 기능성, 구조성(벽의 조립, 교체 용이)	특정한 벽의 공간을 기능적으로 배열	미학보다는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의미에 중점
		⑬ 문헨 팔라벨		리듬성 (격자 구조의 반복에 의한)	기능적인 내부배열로 효율성 강조 (셀구조)	온화한 실내분위기, 아치형 천장
	⑭ 이태리	밀라노 colon palium		내부 공간의 가변성과 융통성	칸막이 벽구조	기존 건물 모티브 차용
	⑮ 괌	피코 묘지		도시적 맥락성과 기하학적인 정확함	질서정연한 4각형의 단일체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구조와 기념비적 초점을 갖는 외관</li> <li>• 깨끗하고 세련된 도시의 조형미</li> </ul>
건물형	⑯ 영국	시영묘지 카타콤		균정성 (좌우대칭에 의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공간 확보</li> <li>- 공간의 연속성 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극장의 이미지 기념성 추구</li> <li>• 빛의 유입</li> </ul>
	⑰ 프랑스	팔라소스		원통(cylinder)요소의 반복	단순한 매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념비적</li> <li>• 추억의 세계와 향수와의 조우</li> </ul>
	⑱ 미국 워싱턴	포드, 링컨 묘지		셀구조의 반복에 의한 리듬성	중세 건축사원의 정적, 고요함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뉴멘탈리티와 장소성 구현</li> <li>• 깨끗하고 세련된 장소</li> </ul>
	⑲ 일본	동경 미고로모 (みころも) 영랑		대칭형 단순성	근대 이미지 부각 유니크한 외관과 경쾌한 내부공간	기억에 근거한 단순, 순수형태로의 환원

## V.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위한 모지조형물 디자인

### 5-1. 디자인 배경.

오늘날 우리 사회는 풍수지리설에 입각한 뿌리깊은 명당 선호사상과 화장의 기피현상 그리고 일부 계층의 호화분묘 설치등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많은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화장을 전제로한 '가족단위 납골묘지' 디자인을 계획하였다. 이것은 최소의 면적과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가능하며 환경조형물로서 시스템화하면 조각공원과 같은 쾌적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어 묘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새롭게 승화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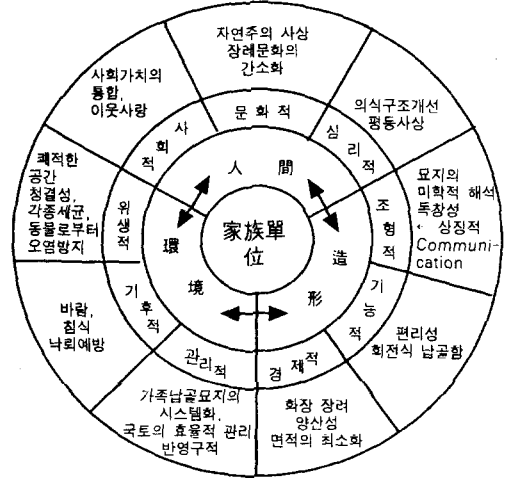
또한,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에게 직계가족의 조상을 모실 수 있는 묘지조형물을 같은 크기로 사용케 함으로써 가족단위의 personality를 배려하고 조상숭배의 가치를 누구나 평등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관점	◀의미1	◀의미 2	◀의미 3
시점	◀전국토의 묘지화로 인한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회적 문제로서의 쟁점화	◀정부(보건사회부) -아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류제정	◀묘지조형적의 문화적 IDENTITY
시각	◀한국적 묘지 커뮤니티	◀묘지문화 환경적 커뮤니티	◀납골공원 환경적 커뮤니티
목표	◀묘지면적의 최소화로 효율적 국토관리	◀편리하고 쾌적한 묘지환경	◀독창적 납골조형물
제안	◀가족단위 납골묘지의 PROTOTYPE화	◀시스템화	◀통합화

### 5-2. Design Concept Diagram

디자인 컨셉은 크게 3가지 관점 - 즉 첫째, 가족납골묘지가 놓여지는 공간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환경(장소성)적

인 측면, 둘째, 가족의 사진, 이름 등을 삽입하고 편리하게 납골안치를 기능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조형(기능성)적인 측면, 셋째, 장례문화의 간소화로 인해 사회적인 의식구조의 개선을 유도하는 인간(사상성)적인 측면 -에서 접근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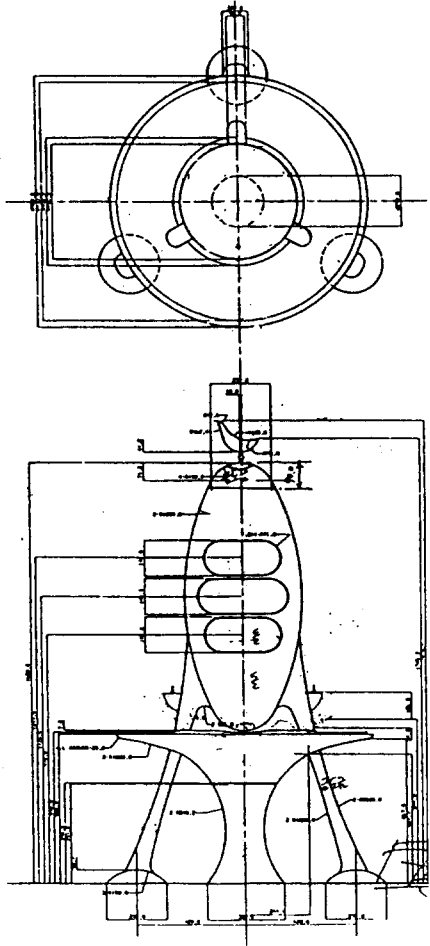


### 5-3. 가족단위 묘지조형물의 Design Motif

가족단위 묘지조형물은 두사람 이상의 신위를 함께 모시는 합사묘(合祀墓), 개인 및 선조묘의 집합 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구성요소로서는 ① 묘석 ② 납골함(개인의 위패를 처리하는 곳) ③ 화단(꽃) ④ 제대(음식놓는 곳) ⑤ 향 ⑥ 배석(절하는 곳) ⑦ 촛대 등이 있으며 주된 사용재료는 석재(石材)이다. 이와 같은 개념을 기초로 하고 다음의 Motif를 응용하여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키워드	형상	구성요소 및 기능	상징의미
生(Vitality)		묘지형태 (조형물의 전체적 형상은 알의 모습)	생명의 근원 원(하늘, 태양)을 상징 : 우주적인 父性
靜(silence)		새 주둥이 끝부분은 낙뢰예방의 피뢰침 역할	자연의 심오한 질서와 조화, 기다림 속에서 겸허히 받아들임
交(Communication)		제대 (음식 및 향을 놓는 장소)	성찬식때 예물봉헌과 같은 개념으로 조상에 대한 예우를 뜻함.
動(Movement)		회전식 납골함 (각 Unit별로 상단부터 연장순으로 삼면에 안치가능)	<납골함 외부 음각 위패처리> 父 顯 考學生府 君 母 顯 妣孀人 ○○○氏
望(Longing)		촛대꽃이	선조의 평안함 기원 영혼을 부름

## 5-4. 디자인 제도 및 배치사례



### VI. 결론

우리나라는 고대국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례를 후히 하는 풍습이 있어 정중히 예(禮)를 다하여 장례에 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조선의 예는 철두철미한 유교적인 방법으로 효의식의 묘제에 대한 반영으로 그릇된 영향을 미쳤으며, 더욱이 풍수설로 인하여 이장(移葬)과 공사가 극심하였다. 이후 근대 산업화 발전과 함께 인구가 증가되고 따라서 사자(死者)도 증가되어 묘지가 점차 확대되어감에 따라 유한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문제가 묘지와 관련되어 제기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사회공공적인 견지에서 화장의 확대를

유도하고 묘지면적 및 묘지내 시설물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국토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묘지의 집단체화, 구역화, 공원화와 함께 묘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무엇보다도 물리적이고 감성적인 면에서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묘지를 통하여 타고르의 시처럼 '긴여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과거를 음미하면서 삶의 참모습을 깨닫는다면, 오히려 유토피아는 우리 현실세계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묘지공간이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명상의 공간, 또는 '안락함의 장소, 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연주의, 평등사상 등 인간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적인 측면과,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편리한 납골안치기능과 독창적 상징성을 표현하는 조형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묘지조형물디자인을 진행하였다. 특히 우리생활 안에서 일종의 휴식공간, 운동, 교양 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묘지문화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묘지문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관심이 첨단을 향한 성장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정신적 삶의 가치에 관련된 부분도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질 때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1. 박용숙, 한국의 미학사상, 일월서각.
2. 최운식, 민족적 삶의 의미, 한울.
3.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4. 김경주, '2중장례소고' 서울 문리대학보, 1970.
5. 한용한, '한국소설에 나타남 죽음의 문제' 동국대학원, 1972.
6. 홍현주, '조상제례에 대한 가치관 연구', 계명대학원, 1970.
7. 김동욱, '죽음의 인식을 통해 본 노래 성격', 정신 문화원.
8. 김진숙, '안락사에 관한 연구' 이대 철학과, 1988.
9. 유도화, '삶의 이미지 표현으로서 회화' 홍익대 대학원, 1991.
10. 김태복, '묘지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행정학회.
11. 김부식, '한국묘지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경희대학원.
12. 조종식, '한국묘지에 관한 법적연구', 경희대학원. 1985
13. 한명석,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묘지제도 개선방향 연구' 전주대학교 지역 개발대학원 1988
14. 홍순백, '우리나라 묘지제도 개선방향에 관한연구' 건국대행정대학원 1995
15. 한국 산업개발원, '묘지 제도의 개선방안 조사 연구'.
16. 단테 신곡중, '지옥편'
17. CARLO SCARPA 작품집, 태림문화사.
18. ALDO ROSSI 작품집. 태림문화사
19. 藤井正雄, 'お墓のすべてがわかる本' プレシテント社 1991
20. 渡邊欣雄 '風水思想と東アジア' 人文書院 1993
21. 국립 민속 박물관, '韓國喪葬禮', 미진사, 1990.
22. 河合隼雄 '生と死' 潮出版社 1992
23. 赤田光男 '朝靈信仰と他界觀' 人文書院 1990